

지역 소식통

국토부, 홍보영상 촬영 위해 군산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

최근 국토부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해 군산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군산을 방문한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와 촬영팀은 고우당, 이담미술관, 공예협동조합 소품, 주민 공모사업 현장, 신흥동 일복식 가옥 등을 찾아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청년 리포터가 관광을 테마로 도시재생 사업현장을 소개한 이날 현장에서는 몽실이 거리 등 예쁘고 멋진 거리와 상가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홍보물 제작을 진행한 김진수씨는 "도시재생정책을 관광이라는 콘셉트에 녹여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홍보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상반기 시민문화강좌 회원 모집

군산시립도서관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인 아동독서지도사(30명), 캘리그래피(20명), 힐링 꽃그림 세밀화 그리기(20명)이다.

초등학생은 보드게임과 함께 수학놀이(초등 2~4, 16명), 토탈공예(초등 1~4, 15명), 쉽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초등 3~4, 15명), 생명·발명 과학교실(초등 2~6, 15명), 맛있는 북서교실(초등 2~4, 16명), 미술삼디치료(초등 3~4, 12명)를 모집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자동차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익산시가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 장착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시 전역을 순회하며 연중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대상은 자동차에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추진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판매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6,778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에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에 협조 선진 납세문화와 긍정적인 자세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활용 교육 받은 800여 농가 대상 광합성 균·EM 2종 무상 공급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제제 600톤을 자체 생산하여 원예·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유용미생물 제제는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해 배양한 것을 말한다.

미생물제를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배양한 후에 원예·축산농가에서 활용하면 항생제, 화학비료의 사용 절감, 축사 악취저감 효과 등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줘 농가 소득은 물론 친환경 농업의 필수 요소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받은 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광합성 균과 EM(유용미생물제) 2종을 공급한다.

광합성 균은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축사 주변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되며 EM은 시설 원예농가의 작물 생육속진과 연작장애 감소 목적으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친환



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과 2016년 증축을 통하여 총 건축면적 368㎡ 규모의 시설에 실험실, 배양실,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 농가 만족도와 효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매주 왕궁지역 축산농가에 자체 배양한 광합성균 130여톤을 공급하여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보여왔다.

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을 이용하

는 송고남 농가는 "축산 악취 때문에 고충이 심했는데 광합성균을 꾸준히 사용하여 악취 저감 효과와 함께 양돈 분뇨 슬러지 감소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고 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과 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민·관 협력 전북바다안전 책임진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민간해양구조대 재정비 일괄 동원 체계 구축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 안전을 지키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새롭게 태어났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해양사고에 대비한 구조세력 확보와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를 재정비하고 일괄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경찰이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다 사정에 밝은 어업인, 잠수사 등의 협조를 받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참여

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다.

해경은 그간 87명으로 운영하던 민간해양구조대 인원을 111명으로 늘리고 3개 해경센터 산하에 13개 지역구조대로 새롭게 조직했다.

이와 함께 동원가능 선박 파악과 상황 전파를 위해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을 바꿔 일일동원선박을 지정하고 해경에서 운용중인 '상황전파 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연계해 사고 상황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명구

조 활동이 필요한 현장에서 구조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손აკ을 다루는 환자 후송과 저수심으로 합정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라북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과 바다사정에 정통한 민간구조대가 안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내 몸에 활력 더하기' 프로젝트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통합 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민생질환 예방 프로그램인 '내 몸에(愛) 활력 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평소 운동부족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이 우려되는 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군의 기초체력

을 상승시켜 질환의 이행을 막고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근력운동, 스텝박스 방송댄스 등 유산소와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도와 스트레스 해소

를 물론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주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시민전시장' 신청자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이 원도심 활성화와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근대시민전시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자는 군산 원도심에 소재지를 두고 전시장 개관 후 2년 동안 전시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곳으로, 군산의 근대이미지와 부합하고 지역적 특성이 배어있는 곳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군산시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제안서와 신청서를 다운받아 내달 10일까지 박물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신청서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내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사업에 선정된 곳은 '근대시민전시장'이 조성되며, 기타 전시홍보물(리플렛,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및 언론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박물관 관계자는 "근대시민전시장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에 전시전문가인 박물관이 전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군산의 원도심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이라며 "앞으로도 박물관은 군산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교육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5회에 걸쳐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을 위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비즈니스 교육과정은 SNS시대를 앞서가는 사이버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지역농산물의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한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과정이다.

e-비즈니스 감소농 육성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고, SNS 활용 등 시대에 맞는 농산물 판매방식 대응으로 고객기반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주로 상품페이지 구축능력, 상품 경쟁력 확보 능가 및 연소득 4천만원 이상 농가들로 구성되어 운영 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원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2월부터 5월까지 주 2회 6시간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민간육종연구단지입주자협,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민간육종연구단지입주자협의회(회장 이명석)가 종자산업 분야의 교육 연구 개발 및 교육부 프라이머리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은 김도중 총장과 이명석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원광대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협약에 따라 원광대 프라이머리사업 목표인 '농생명 및 스마트기계 소재 산업 인력양성' 달성을 위해 인력 및 학술정보 등을 교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각종 체험 학습활동과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

해 종자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 모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먹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종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녹색혁명을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사업 인프라를 비롯해 종자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행복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